

이 자료는 2012년 1월 1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NH NongHyup

농협

보도자료

2012.1.12

○ 내용문의 : <한우>축산유통부 김란 과장 02)2080-6521~4
<육우>축산지원부 박철진 연구역 02)2080-6566

○ 자료제공 : 홍보실 전상배 차장 02)2080-5758

농협, 소값 안정 종합 대책 발표

《 한 우 》

- 유통 부문 :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 연동
 - 농협 직영 셀프형 축산물프라자 모델샵 오픈 : ('12) 2개소
 - 「축산물프라자(셀프형)」 확대 : ('15) 200개소
 - 목우촌 웰빙마을 : ('12) 50개소 / 파머스밥 : ('12) 15개소
 - 「농협 안심축산」을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하여 유통구조 개선
- 생산 부문 : 사육두수 감축 및 생산비 절감
 - 저능력 암소 도태 : 10만두 감축
- 소비확대 부문
 - 설날 한우 선물세트 특별 할인판매 실시 : `12.1.2~17
 - 고객감사 한우고기 할인행사(30% 이상) 추진 : `12.2월~
 - 수입쇠고기·돼지고기를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 군납 추진

《 육 우 》

- 육우 송아지 고기 시장 개발
 - 6개월령 육우 송아지 1,000두를 시험사육하여 송아지고기 생산·유통
- 육우고기 수요 확대를 통한 육우가격 안정 도모
 - 목우촌 육우고기 전문식당(“미소와돈”) 확대 : (3개소 → 30개소)
 - 육우 소시지 및 송아지 육포 개발
 - 목우촌 육우 위탁사육 추진 : (1차) 1,000두 → (2차) 4,800두
- 대대적인 소비 촉진 및 홍보
 - 정부와 함께 6억원을 투입해 송아지고기 요리대회 및 시식행사 실시

- 농협중앙회가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. 농협중앙회 축산경제(대표이사 남성우)는 1월 12일 한우 및 육우가격 안정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“농협 소값 안정 대책”을 발표하였다.
- 한·육우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% 하락하여 한·육우 농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. 특히 송아지를 구입하여 비육하겠다는 농가가 크게 줄어들어 큰소에 비해 송아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.
- 그동안 농협은 저능력 한우암소 자율도태, 한우불고기 반값 할인행사 등을 위해 총 2,00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조합에 지원하는 등 소값 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, 이번에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적극적으로 한·육우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- 우선 셀프형 정육식당 모델샵을 서울 시내에 올해 안에 2개소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. 축산물프라자는 산지가격이 연동되는 한우전문식당으로, 일반 식당에 비해 20~30% 이상 싸게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. 각 지역축협에서도 2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총 127개소의 축산물프라자를 운영할 예정이며, 장기적으로 특·광역시에도 각 구청별로 1개소 이상 확대 개설하여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국내산 쇠고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목우촌에서 운영하는 정육점형 식당인 「웰빙마을」도 50개까지 확대하고 불고기 덮밥 전문점인 「파머스밥」도 15개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.
- 또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 안심축산을 대형패커(생산, 도축, 가공, 판매까지 총괄하는 업체)로 육성하여 유통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을 6.5%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이와 더불어 소비지판매망인 안심축산물전문점도 '15년까지 2,000개소로 확대하여 시장점유율을 50%로 확대함으로써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.
- 생산 부문에서는 한우암소 도태장려금 300억원을 지원하여 한우암소를 10만두 감축하고, 한우개량을 통해 1등급 이상 출현율과 생체중량을 늘려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.

- 한편 소비확대를 위해 17일까지 설날 한우 선물세트 50,000세트를 정상 가격 대비 최고 38%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, 2~3월에는 하나로 마트, 농협유통 등 농협 계통기관 축산물판매장 약 1,200개소에서 총 4만두 분량의 한우 불고기 및 국거리를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약 30% 이상 할인판매하는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통해 한우고기 소비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.
- 또한 오는 13일(금)에는 농협 전사적으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, 국내 대기업 2,000개소 및 공공기관 등에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요청하는 농협중앙회장 친서를 발송하여 범 국민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.
- 이 밖에도 군납용 돼지고기를 한우와 육우로 대체하여 한우 6,000두와 육우 1,500두의 물량을 소진함으로써 한우 및 육우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한편, 현재 가격하락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육우부문 대책으로는, 6개월령 육우송아지 1,000두를 확보하여 시범 사육 후 연하고 담백한 웰빙 송아지고기를 생산, 농협목우촌 육우전문매장 및 하나로클럽, 축·낙협 육우전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한편,
- 육우 및 육우송아지 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6억원을 투입하여, 설 이후 단계적으로 요리대회 및 시식행사 등 판매촉진 행사를 통해 육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.
- 또한, 육우소시지 및 송아지고기 육포 등 신제품을 개발하여 금년 3월경 시판하고, 육우송아지 요리를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.
- 그리고 육우판매채널 확충을 위해 목우촌 전문식당 「미소와돈」을 현재 3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개설하는 한편, 목우촌 육우 계열사업으로 위탁사육농가를 모집하여 1천두를 입식하고, 단계적으로 4천8백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

□ 한편 젓소 수송아지 생산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용 성감별정액을
11년 6천개에서 12년 1만5천개로 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.

□ 농협 축산경제 남성우 대표이사는“빠른 시일내에 소값이 안정될 수
있도록 농협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부문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
겠다”고 밝히며, 국내 한·육우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전 국
민이 함께 소비확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